

『사랑의 말씀』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563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경해도 좋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한쪽 손이 마른 병자를 보시며 긍휼히 여기셨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율법적으로 옳은지를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반문하시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질문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죄인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의 최고 절정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말씀에 기록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무엇인가?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첫째, 구원의 은혜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며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이 땅의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없다.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죄인이었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의 사랑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둘째,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이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말씀대로 강차 오실 메시야 곧 예수님은 이 세상에 연약하고 상한 난 사람들을 품으시고 회복시켜주실 분을 뜻한다. 그러면 누가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일까? 누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일까? 우리 모두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연약할 때에 오히려 더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으신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목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앞만 향해 전진하라』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359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경해도 좋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긍정적 사고주의자와 부정적 사고주의자이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대부분 부정적 사고가 깊이 뿌리 박혀 있다. '민습니다'라는 말은 늘 앞을 향해 나가는 것이다. 앞으로 가는 것이 쉽고 빠른 것처럼 생명력이 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첫째, 앞을 향해 전진해야 한다. 세상에서 어려움이 없는 자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앞으로 가라고 하신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비전을 갖고 어떤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앞으로 나가면 모든 것이 형통해지고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 인생의 패배감 없이 하나님만 따라가면 우리의 분명한 목표를 하나님이 보신다. 장애물을 해결해 주신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긍정적이셨던 분 예수님, 그는 어느 누구를 만나도 비전과 꿈을 심어주셨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전진해야 한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목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둘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에게 쓰임 받는다. 위대한 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위대한 사람인 것이다. 성도의 축복은 생명과 축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부들,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여인, 자신이 감히 숙녀가 될 수 있다고 믿는 매춘부까지 이러한 사람들의 불가능을 성취 시키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다. 어떤 불가능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내게 능력주시는 자』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406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경해도 좋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13)." 이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보면 "내게 힘을 주고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이다. 즉, 바울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려고 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능력이다. 그 능력은 자기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증거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첫째, 기뻐하는 능력이다(10). 우리가 언제 기뻐하게 되는가? 어떤 조건이 만족 되었을 때 기뻐할 수 있다. 그런데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은 주 안에 있다. 믿음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 진정한 기쁨은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얻는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목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둘째, 자족하는 능력이다(11). 자족이란 없는데 있는 척하는 허세와는 다르다. 없는 상태 그대로 살아가는 태도를 말한다. 족하게 여기는 마음을 말한다.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어도 없는 대로 살 수 있는 것은 보통 능력이 아니다.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다.

셋째, 복음 전하는 능력이다. 선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다. 전도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다. 우리는 이 능력을 키워야 한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를 세웠다. 지난 2천여 년 교회 역사 속에서 복음이 오늘 나에게 주어졌다.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은혜의 돌을 세워라』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301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정해도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제사장 주변에 있는 돌을 지파별로 하나씩 취하여 첫 번째 장막을 친 곳에 돌을 쌓으라는 명령을 한다. '돌'은 '에벰'이다. 에벰은 어깨에 멜 정도로 제법 큰 돌이다. 이 돌을 보면서 '요단강을 건넜던 것을 기억하라! 여호와와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즉, 여호와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다. 돌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언제까지든지 하나님의 일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찬송도 기도도 익숙해져 버린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범하기 쉬운 죄는 잊어버려 익숙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이 이 기도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넜던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을 취하여 단을 쌓으라는 것은 기념물이다. 12지파가 힘을 합해서 아주 큰 돌 하나만 세워도 될 텐데 하나님은 12지파 각기 따로 돌 하나씩 들고 와서 세우도록 했다. 왜일까?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다.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이 나에게 주신 일이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7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기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념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잊어버린 것처럼 계신다. 내가 기억할 때 같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행동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를 기억하신다. 성찬식을 하고 세례식을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기억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억하는 만큼 주님도 우리를 기억하신다. 익숙해지지 말아야 한다. 기억할만한 은혜의 돌을 계속해서 세워나가시길 축복한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 신앙의 오솔길

타산하지 않는 사랑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 가장 걸맞은 명칭은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일 것이다. 이 드라마는 두 막으로 되어 있다. 1막의 제목은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고, 2막의 제목은 '잃어버린 맏아들'이다.

먼저, 짧지만 충격적인 요청으로 1막이 시작된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눅15:12)라고 말한다. 이 비유를 들은 최초의 청중은 이런 요구에 경악했을 것이다. 아들이 가산의 일부를 자기 몫으로 바라는 게 부당해서는 아니다.

그러나 유산의 분배는 아버지의 사후에만 이루어졌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지금 달라고 한 것은 지극히 무엄한 행위였다. 아버지 생전에 유산을 구한다는 건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과 같았다. 한마디로 둘째 아들의 말은, 자신은 아버지의 재산만 원할 뿐 아버지는 싫다는 뜻이었다.

여태 그에게 아버지란 유산을 물려받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는데, 이젠 그 관계마저도 지겨워졌다. 그래서 그는 벗어나고 싶어 했다. 그래서 둘째는 아버지를 감히 찾아가서 "이제 내 몫을 넘겨 주시지요"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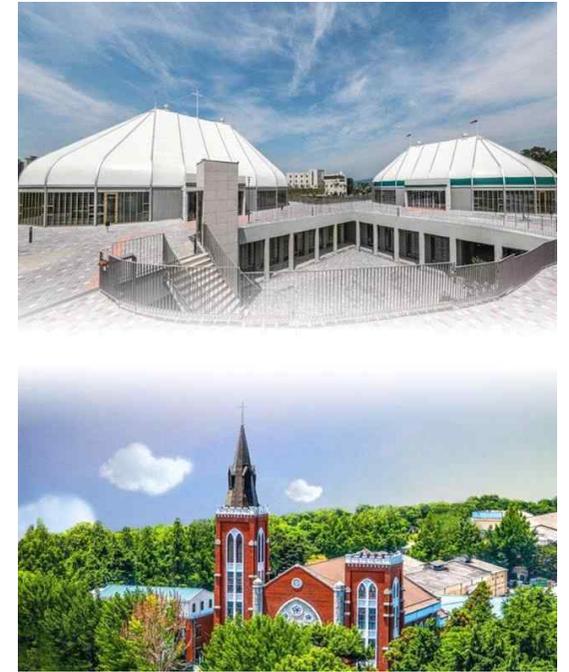
아버지의 반응은 아들의 요청보다 더 충격적이다. 당시는 고도의 가부장 사회였으므로 어른들, 특히 부모에게 품는 경의와 존경이 더없이 중요했다. 이 상황에서 중동의 전통적인 아버지가 의당 보일 반응이란 아들을 호되게 혼낸 뒤 집안에서 내쫓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러기엔커녕 그냥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눅15:12)다.

이 의미를 이해하려면 본문에 "살림"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비오스'가 본래 '생명'을 뜻한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중략]

결국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요구한 것은 아버지 목숨을 찢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 그대로 해 준다. 당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청중은 대부분 중동의 가부장에게서 그런 식의 반응을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당한 고통뿐 아니라 처참한 명예 훼손까지 참고 견딘다. 대개 우리는 사랑을 거부당하면 화가 나서 복수한다. 거부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최대한 거둬들여 자신의 상처를 줄인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줄곧 사랑하며 괴로움을 견딘다.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림교회

위임목사 : 최 용 희

임동 예배당 :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7 T.525-5252 F.525-5260
수완 예배당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완길 303 T.525-0303 F.525-0301